



공중볼 다툼 2일(한국시간) 오전 노르웨이 오슬로 올레볼 경기장에서 펼쳐진 월드컵대표팀과 노르웨이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설기현이 한국측 문전에서 프로드 존슨과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답답한 90분

노르웨이와 평가전 0-0 무승부

아드보카트호가 복유럽 강호 노르웨이와 평가전에서 시종 무기력한 플레이 속에 득점 없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디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일 오전(한국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올레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르웨이와 평가전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한 채 0-0으로 비겼다. 아드보카트호는 지난 해 10월 출범 이후 공식경기 전적 9승4무3패를 기록했고, 유럽 팀과 맞대결에서는 4승3무1패가 됐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선발 스리톱으로 왼쪽 정경호, 중앙 원톱 안정환, 오른쪽 설기현을 내세웠다.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부상당한 박지성 대신 예상대로 김두현(성남)이 포진했고,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백지훈(FC서울)과 김상식(성남)이 나왔다. 포백(4-back) 라인에는 왼쪽부터 이영표(토트넘), 최진철(전북), 김진규(이와타), 송종국(수원)이 늘어섰고, 골문은 이운재(수원)가 지켰다. 태극 전사들의 몸은 전반적으로 무거워 보였다. 잦은 패스 미스로 흐름을 스스로 끊었고, 상대의 강한 압박에 밀려 중원을 내준 채 시종 끌려가는 양상이었다. 상대가 골 결정력만 높았다면 두세 골은 내줄 뻔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설기현이 미드필드 정면에서 중거리슛을 날렸으나 힘이 실리지 못해 위험은 주지 못했다. 이후 상대의 압박과 파상공세에 주춤하며 잇따라 슈팅을 허용했다. 전반 20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설기현이 중앙으로 연결한 볼을 안정환이 뒤로 살짝 흘려주자 김두현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한 오른발슛을 날렸으나 수비벽에 막히고 말았다. 전반 25분 마르틴 안드레센의 프리킥과 29분 온 사레브의 오른발슛, 37분 토미 스킨달 라르센의 오른발 슈팅이 연거푸 터졌으나 다행스럽게 골문을 벗어나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크로스를 잡아내다 상대 수비수 발에 머리를 부딪힌 이운재 대신 전반 38분 김영광을 교체 투입했다. 후반 들어서는 안정환 대신 조재진(시미즈)을 최전방에 투입했고, 송종국 대신 김동진(서울)을 내보내 왼쪽 윙백으로 세우고 이

영표를 오른쪽으로 돌려 볼과구를 찾으려 했다. 측면 공격은 다소 활기를 찾은 듯 했지만 경기 양상은 전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후반 11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사레브, 18분엔 2선에서 오른쪽 페널티지역을 파고든 모르텐 감스트 페데르센의 슈팅이 겨우 터졌으나 골키퍼 정면에 안겨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후반 중반부터는 김상식을 밀어내려 내려 스티브 라인을 가동하며 수비 안정을 꾀했다. 종료 직전 설기현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날린 마지막 슈팅이 옆 그물을 출렁였고 곧 이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악!” 이운재 부상 2일(한국시간) 노르웨이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이운재 골키퍼가 부상을 당한 뒤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나와 마지막 평가전 ‘올인’

내일 밤 11시, 베스트 라인업 출격... 본선 경쟁력 가늠

박지성-에시앙 ‘월드컵 10대 스타’ 맞대결

아드보카트호가 4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이스터로드’ 스타디움에서 2006 독일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첫 상대 토고를 가상한 상대 가나와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다. 가나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 처음 나왔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네 번이나 제패한 ‘검은 대륙’의 강자로 지난달 30일 자메이카를 4-1로 대파하는 등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토고는 지난 1월 튀니지에서 가나와 맞붙어 1-0으로 승리했지만 당시 가나 대표팀은 ‘공격의 핵’인 미드필더 마이클 에시앙(첼시)이 빠지는 등 1진은 아니었다. 독일월드컵 본선 두 번째 ‘죽음의 조’로 꼽히는 E조에서 이탈리아, 체코, 미국과 16강을 다툰 가나는 이번 평가전에 최정예 멤버를 출출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드보카트호의 주전 라인업을 출격 대기해놓은 상대라 한국-가나전의 초점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격돌로 자연스레 모아진다. 우선 중원의 ‘월드컵 4강 삼총사’인 박지

성, 이을용, 김남일이 빠진 상태에서 치른 노르웨이전에 단순히 ‘원정 적응력을 시험해본 한 판’이었다면 이번 가나전은 ‘베스트 라인업의 진정한 본선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대 일전이다. 또 원포워드 요원인 이천수와 박주영을 노르웨이전 전·후반 내내 ‘꼭꼭 숨겨둔’ 선수에게도 가나전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23일 세네갈전,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에서 오른쪽 원포워드로 선발 출전시킨 이천수를 “선수 보호 차원에서 노르웨이전에서는 빼겠다”고 미리 예고했다. 그리고는 박주영을 그 자리에 내보낼 듯 하더니 의외로 정경호(광주)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전에 나온 정경호-안정환(두산베르데)-설기현(울버햄프턴) 스리톱(3-top)이 아드보카트호의 베스트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천수와 박주영 가운데 어떤 카드를 가나전에서 꺼내들지 초미의 관심사

한국-가나 예상 선발 라인업



다. 이와 함께 그동안 9승4무3패를 거두며 16차례 공식 평가전을 치러온 아드보카트호가 모의고사의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느냐도 관건이다. 오는 6일 독일대 배이스캠프인 쾰른으로 입성하기 직전 최종 평가전에서 승리의 기운을 안고 가나, 패배의 무기력증을 짊어지고 가나나는 오는 13일 토고와 본선 첫 경기를 앞두고 ‘분위기가 싸움’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가나는 어떤팀 월드컵 첫 선 ‘검은 돌풍’

FIFA 랭킹 48위로 한국(29위)보다 처지는 가나는 독일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6승3무1패(17득점 4실점)로 2조 1위를 차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가나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4차례(1963, 1965, 1978, 1982)나 우승하고, 세계청소년(17세 이하) 선수권대회에서도 1991년과 1995년 등 두번이나 정상에 오르는 등 저력이 만만찮은 팀이지만 유독 월드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2004년 6월 부르키나파소와 독일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원정 1차전에서 0-1로 패할 때만 해도 가나의 독일행을 기대한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후 2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3-0으로 제압하며 내리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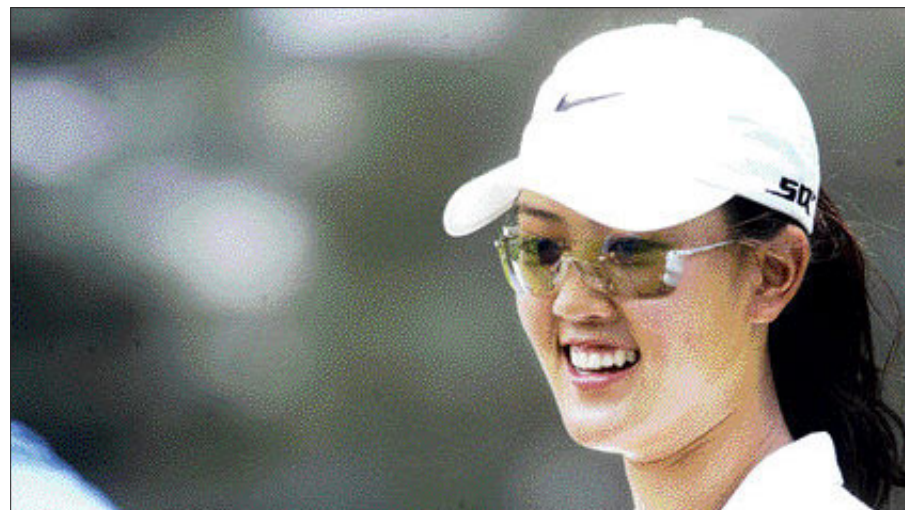
외신들 “한국팀 실망스럽다”

2일(이하 한국시간) 노르웨이와 평가전에서 득점없이 비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 외신들이 일제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AP통신은 “경기는 노르웨이가 지배했지만 결과는 0-0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디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에게 실망스런 경기’였다고 전하며 “노르웨이가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이날 박지성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을 뺀 채 경기에 나섰다”고 전했지만 “이날 한국은 노르웨이의 수비벽을 뚫는 방법을 좀처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이어 “한국 수비는 이날 노르웨이의 스트라이커 온 사레브에게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내줬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역시 “노르웨이가 경기 내내 볼 점유율이 더 높았다”며 “가나와 경기에는 박지성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아드보카트 감독의 말도 함께 전했다. 유럽의 스포츠전문채널 유로스포츠 역시 2일 인터넷판에 ‘오슬로에서 실망한 한국’이라는 제하의 짧은 기사를 실고 “유럽팀을 상대로 부진한 경기를 펼친 한국팀을 놓고 아드보카트 감독이 상당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1언더 34위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1R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 전초전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나선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첫 날 중위권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의 뉴에필리피지골프장(파72·7천300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34위에 그쳤다. 최경주는 버디 6개를 뽑아냈지만 보기 3개에 더블보기 1개까지 곁들이는 등 스코어 카드가 다소 여수선했다. 경기는 비가 내린 바람에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우여곡절 끝에 30명의 선수들이 1라운드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순연했다. 스티브 플래시(미국)는 17번홀까지 6언더파를 쳐 리더보드 상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18번홀 페어웨이에서 두 번째샷을 준비하다 경기 중단을 알리는 사이렌을 듣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와야 했다. 18홀을 마친 선수 가운데 5언더파 67타를 친 손 오혜어(미국)가 가장 좋은 스코어를 냈다. 썸 존슨(미국)은 17번홀까지 4타를 줄여 3위에 올랐고 필 미켈슨, 데이비스 러브3세, 프레드 커크스(이상 미국), 크레이그 패리(호주),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3언더파 69타를 쳐 상위권에 포진했다. /AP·연합뉴스



최경주 “가자! US오픈” 최경주가 2일(한국시간) 오는 5일 US오픈 하이라이 지구 예선이 열리는 뉴저지주 서밋 카운티골프장에서 연습 라운드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3일(토)

-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피츠버그>(07:55·Xports), <필라델피아-LA다저스>(11:30·Xports)
-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16강전(10:00·MBC ESPN)
- ▲K-1(15:00·MBC ESPN)
- ▲N-리그<고양-강릉>(15:00·KBS SKY SPORTS)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세이부>(17:50·SBS스포츠)
- ▲월드컵 국가대표 평가전<스위스-중국>(23:55·KBC)

- ▲프로야구<한화-현대>(18:00·KBS SKY SPORTS), <삼성-기아>(20:00·MBC ESPN)

4일(일)

- ▲PGA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3R(04:30·SBS스포츠)
- ▲메이저리그<시카고C-세인트루이스>(04:55·Xports), <플로리다: 콜로라도>(08:55·Xports)
- ▲프로야구<한화-현대>(13:30·KBS SKY SPORTS), <삼성-기아>(14:00·MBC ESPN)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세이부>(17:50·SBS스포츠)
- ▲월드컵 국가대표 평가전<한국-가나>(22:30·KBS2·MBC·KBC)